

패러다임 유형분류에 의한 대구근대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 Analysis of the Paradigm in Daegu Modern Housing

장석하*
Jang, Suk-Ha

강신열**
Kang, Shin-Y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Western modern architecture flowed into Korea in extent of architectural mind after opening the port and what the transformations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re in the spreading process.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as a fundamental work to look into modern architecture in the point of architectural paradigm, the meaning of which is the link betwee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ough inflow and settling of Western modern architecture in the modern age of Korea.

Keywords : Western modern architecture, paradigm, Daegu Modern Housing

I. 서 론

1. 연구목적

서구의 근대화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시민계급의 의식개혁에서부터 변화하여 봉건적 계급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자율적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밖으로는 열강들의 식민지개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는 근대화의 출발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서구열강과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문호가 개방되면서 타율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호의 강압적 개방에 따른 사회·인문적 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건축 역시 건축관의 측면, 재료의 측면, 건립주체의 측면 등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급변하는 국내상황 속에서 기존의 건축적 정체성은 혼란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정회원,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회원,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졸업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개항이후 근대기의 서구 근대건축이 어떠한 건축적 사고의 범위 내에서 국내로 유입되고 또 전개과정에서의 변형과 그에 따른 건축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러한 연구는 한국근대기에 서구건축의 유입과 토착화과정을 통해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근대건축을 건축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① 문헌연구를 통해 서구와 한국 근대화의 인문, 사회적 배경과 시대상황에 따른 건축의 전개를 고찰한다. ② 문헌연구를 통해 패러다임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도출한다. ③ 작품 분석을 통해 근대건축의 패러다임을 분석한다. ④ 분석된 결과의 종합으로 대구근대주거건축에서의 패러다임 표출상황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며 세부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근대건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방법론과 방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및 방법을 정립

한다.

2) 서구의 자율적 근대화와 한국의 타율적 근대화를 비교하여 한국근대화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한 고찰로서, 근대화의 인문,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한국근대기의 서구건축의 형성과 진행에 관해서 알아본다.

또, 한국 근대건축의 시기구분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정립하고 지역적 특성이 명확한 대구의 근대건축도입과 발전을 인문,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그 시기구분을 한다.

3) 패러다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여 작품분석의 틀로서 제시한다. 특히 패러다임의 유형은 ‘한스 로버트 야우스(Hans Robert Jauss)’의 문학사적 패러다임의 유형을 차용하여 특성을 도출한다.

4) 대구지역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은 기능별, 건립주체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건물의 개요 및 연혁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건축적 특성을 분석하여 패러다임의 유형에 대입하여 패러다임의 적용방식을 평가한다.

5) 이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의 분석을 통해 대구지역 근대건축의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한다.

II. 대구 근대건축의 시기구분

1. 한국근대의 인문, 사회적 배경

한국의 근대화 시점은 서구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개항을 전후하면서부터 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가 단순히 개항이라는 서구문물의 유입과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역사상의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과정들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주적 근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구문물의 전래는 사신의 왕래와 지식인의 중국여행을 통하여 16세기경부터 이루어지고 18세기경에는 조선사회에 실학이 일어나 근대 지향적인 정치, 경제 사상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 개화사상이라는 의식적인 운동이 있었고 이러한 운동은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밑에서부터의 사회질서체제의 변화, 민중자본의 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주적 노력이 있는 반면에 한국근대화는 서구열강과 일본에 의한 타율적이었으며, 특성이란면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시민 사회를 지향하여 준비되어 오던 민중적 시민역량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강점으로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근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인문사회적 배경은 기독교의 전래와 수용의 과정, 외세의 침입과 자주개화의식의 고취과정,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중자본의 형성과정, 또 일본의 경제침략과 식민통치정책 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2. 대구 근대 건축의 시기구분

한국근대건축사는 서구 유럽과 같이 역사적 변화가 내재적 요인들의 자생적 변화에 의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압적 요인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근대건축사의 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와 시기구분의 문제 역시 논자들마다의 견해가 서로 다르며,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근대건축사의 시기구분에 대한 논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재료, 시공방법 등이 완전히 구분되는 1876년의 개항 이후로 보는 설 둘째, 한국 근대건축의 맥을 전통건축의 발전 속에서 찾아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1894년 갑오경장으로 보는 설 셋째, 서구의 건축양식이 도입되고 한국인이 근대적인 건축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1919년으로 보는 설¹⁾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자들의 시대구분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시기구분에 관한 관점에서 건축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건립주체 중 일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건축의 발전기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양식의 건축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국내에 소개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제한하였다.

1) 윤재웅,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91, p.38.

표 1. 한국근대건축 선행연구의 시기구분-1

논자	시 대 구 분			비고	
	구 분	년대구분	성 격		
윤 일 주	초기양식건축	1900년 이후	구한국 말기의 시기와 비슷한 양상	·서구식 건축의 변천과정을 일반 역사와 관련하여 구분 ·초기의 양식건축과 구한국말기의 건축은 비슷한 양상이긴 하나 건축주체의 문제로 구분	
	구한국기건축	1901~1910	한국정부 의한 자주적 도입 시기. 시민들에게 서구식 건물이 계몽된 시기		
	일제전기건축	1911~1925	관아건물로서 양식주의(절충의) 시기		
	일제후기건축	1926~1945	일본의 조류에 따라 근대주의적 성격의 시기		
김 영 태	해방이후건축	1945~	6.25사변 후 한국인 건축가 스스로에 의해 합리주의 건축의 시기	· 한국근대건축을 시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 중 사회구조의 변모에 따라 구분	
	근대1기	개화기이후~한일합방이전	외국인의 공관건축, 선교사업 건축 및 상업건축이 타율적으로 유입되고 명목상 한국 정부에 의한 관청건물과 관위건물이 세워짐으로 서구건축이 어느 정도 일반인에게 계몽된 시기		
	근대2기	한일합방이후~해방 이전	일제에 의한 서구 양식주의 건축으로 일관된 시기		
안 재 략	근대3기	해방이후~5.16혁명이전	5.16혁명 이전의 혼란상태로서 외래문화에 의존한 자아의식의 결여로 비판 없이 국제주의 건축을 도입한 시기	· 한국내의 건축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제요인을 고려 · 동시대의 외국 특히 일본의 건축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대구분	
	태동기	개항기~1905	외국인에 의해 양식건축이 계몽된 시기		
	이식기	1906~1927	식민지적 성격이 명확하게 되면서 도지부산하 건축소를 통하여 일본을 거친 절충주의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식된 시기		
	발전기	1928~1945	합리주의적 건축이 도입된 시기부분적으로 한국인에 의한 민족자본이 형성된 시기		
김 홍 식	정착기	1945~	진정한 의미의 서구적인 근대건축활동은 해방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부터로 시기구분	· 한국의 근대건축의 시작을 19세기말 서양 건축의 유입이 아니라 건축의 사회적, 민족적 운동에 의해 지배계층의 건축과 민중건축의 2중구조가 사라짐으로 이룩된다고 규정	
	제1기	전기	1790~1880		19세기말 개항을 외세에 대해 자주적 대처가 가능한 첫 시점으로 보고 그 전후를 시대구분
		중기	1881~1905		
		후기	1906~1930		
	제2기	전기	1931~1945		20세기 중엽의 민족해방을 또 다른 자주적 구분점으로 보고 그 전후를 시대구분
		중기	1946~1955		
후기		1956~1979			

표 2. 대구지역근대건축의 시대구분

시 대 구 분		
연대	구분명	시대구분 성격
1885~1902	근대건축 도입기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파를 위해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구건축이 소개되던 시기
1903~1938	근대건축 발전기	경부선 철도공사가 착공되면서 특히, 일본인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일본 주체의 공공 건물, 상업건물, 학교건물이 주종을 이룬 시기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건물의 건립과 이에 따른 일본, 개신교, 천주교 주체의 주거건물이 건립이 이루어진 시기
1939~1945	근대건축 쇠퇴기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본주체의 건립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

III. 패러다임의 유형 및 특성

1.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²⁾의 용어는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과학자의 사고구조를 다루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패러다임을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해(universally recognized solution)” 또는 “합의된 일치(concensus)”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2) 패러다임 (paradigm)의 사전적 의미는 ① 문법, ② 어형변화표, ③ (이론적인)테두리, ④ 모범, 전형적인 예, 실례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과학적 배경을 의미하며,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기까지 전문가 집단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과 그에 따른 해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자 집단의 모든 행위의 배후와 그가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는 과학연구 분야의 규칙, 프로세스, 전제에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방식으로서의 패러다임이 깔려있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며, 일련의 개념적, 이론적, 도구적, 방법론적인 입장 선택을 가능케 해준다³⁾. 정상과학, 즉 하나의 패러다임이 존재하여 그 시기에 과학적 문제 해결에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과학구조로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문제가 그 패러다임에 의해 공급되는 틀 내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하여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 의문이 제기 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개념적인 위기는 “비정상”, 또는 “혁명적” 과학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과학은 결국 패러다임의 수정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상과학은 혁명적 패러다임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장 속에서 존속해 나간다.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패러다임은 어느 기간 동안 전문가 집단에게 문제해결과 해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공통된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에 있어서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갖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이다.

2. 패러다임의 유형분류

본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야우스의 패러다임 유형 분류를 차용하여 고찰하고, 각 패러다임 유형의 건축적 특성을 도출하기로 하는데, 먼저 패러다임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문학 이론가인 야우스(Hans Robert Jauss)가 “학문적 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1969”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한 패러다임의 분류 방식은 건축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형을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문학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되어 온 패러다임의 유형은 3개의 유형으로,

- (1) Classical-Humanistic Paradigm(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 (이하 CHP라 한다.)
- (2) Historicist-Positivist Paradigm(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이하 HHP라 한다.)
- (3) Formalistic-Aesthetic Paradigm(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 (이하 FAP라 한다.)

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문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4번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4) Rezeptionsaesthetik Paradigm (수용미학적 패러다임) (이하 RP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다.

1) 고전적 인본주의적 패러다임

작품은 작자, 비평가, 그리고 독자의 3인자에 의해 완성되어지는데,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작가는 전 과학적 단계에서 행하여져 오던 사고방식으로 작품을 공인된, 즉 명작으로 인정되는 모델과 비교하고 그 수법을 차용하면서 이룩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예술성은 심미적 가치, 즉 완전성, 총체성으로서의 형식 또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비평가의 역할은 작자의 의도 또는 작품의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며, 고정된 법칙에 의하여 현대의 작품을 평가하고 그 작품들이 정전으로 확정된 시작 방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고전 작품을 성공적으로 모방한 작품이 훌륭한 것으로 인정되며, 전통적 관례의 모델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독자관은 고독한 관조라는 독자의 자세이다. 수동적 독자이기도 한 그는 명상하는 존재로 작품을 경배하거나 작가가 작품 속에 투입시킨 의도 내지 도식에 흡수됨으로써만 작품을 이해했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이상적 독자가 작가와 동일한 약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한 이러한 연구 방식의 전형적인 예는 고전시대에 지속해 온 휴머니

3)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62, pp.58-64

4) Ibid, p.28

5) H.R.Jauss, "Paradigmawechsel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Linguistische*, no.3, 1969, 길성호, op. cit, p.45에서 재인용.

스트들의 전통적인 경전 해석의 해석학적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해석학적 방법은 문헌 텍스트의 해석, 텍스트로서의 역사의 해석, 텍스트로서의 인간의 행위의 해석 등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자 그 내부로부터 출발하여 공인된 작품의 불완전하며 모호한 어휘들을 발취하여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의 성공적인 적용은 표면상 나타나는, 작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감추어진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연구 방법은 작가, 작품 중심적인 관찰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주변 세계나 수용자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당수의 건축이론의 연구 문헌들과 디자인 접근 방법들은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루비우스의 이론서를 비롯하여 형식 미학계보의 여러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이 패러다임의 연구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 문헌들은 주로 규범, 원리, 요소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형태 구성의 법칙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왔다. 비트루비우스 이래로 고전 시대의 건축가들에게 건축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을 따라야 하며, 좋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 질서화 된 것이라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었다. 서양 건축의 역사에서 특히 플라톤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수학적 조화에 바탕을 둔 르네상스의 디자인 원리는 18세기의 계몽시대 이전까지 지속하여 온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도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 Art)건축이 보여준 과학에 대한 거부감과 공인된 고전 전통 규범에 대한 선호의 태도, 신고전주의 건축가들이 고대의 훌륭한 건축규범을 정전으로 삼고자 한 태도 등은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것이다.

2) 역사적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쿤이 언급한 정상과학의 위기출현으로서 18세기의 산업사회의 발전을 들 수 있다. 18세기의 여명기를 거치면서 이성과 과학에 의한 확고한 신념이 19세기

에 들어와 사고방식과 학문연구의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과학 중심의 세계관은 고전시대의 세계관(고전적-인본주의 패러다임)을 낡은 규범의 가치로 전락시키게 된다.

퐁트(August Comte)와 페레즈 고메즈(Perez Gomez)는 모든 과학들이 논리와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과학은 각자가 다루는 특수한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⁷⁾. 그리고 실증주의적 사고가 인간을 무한한 이성의 힘이라는 환영에 이끌려 살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객관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⁸⁾.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서, 인간사회에 존재해 온 불가해성과 시적 정서의 영역은 꿈과 광기로 치부되어 배척되기에 이르렀다. 수학적 논리가 사고의 모델로서의 메타포어(metaphor)를 대체하기에 이르렀고, 과학이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고 물리적 현상의 창조행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에 중요한 초월적인 가치는 상실되었다.

야우스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19세기의 역사주의의 과학혁명기에 태동하여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인 문학연구 태도의 기반이 되어 왔으나 기계적 접근법,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인해 1차 대전까지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근대 건축 시기 동안 건축에 대한 해석과 접근 태도는 과학과 기술에 바탕을 둔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산업 혁명에 의해 야기된 새로운 기술과 사회제도의 영향은, 산업사회 이전의 전통적인 구상주의적 표현 체계는 급속히 변모하는 테크놀러지의 맥락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상당수의 건축가들이 문제 해결의 영감의 원천을 당시에 만연되었던 기계에서 발견하고자 한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근대 건축가들이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기계의 논리적, 합리적인 기능과 기능미의 개념에서 발견되는 실증주의 철학의 합리적, 분석적

7) A.기든스, 비판사회학 : 쟁점과 문제점, 1982, 박영신, 한상진 공역, 현상과 인식, 1983, pp. 25-26.

8) Preez 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 The MIT press, 1983, pp. 3-6

6)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시공문화사, 1999, p.46.

인 사고방식은 그때까지 지배해 온 규범인 오더의 원리와 관습에 젖어 있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형식주의적 심미적 패러다임

산업혁명이후의 산업사회는 이성과 과학의 바탕 위에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시대적, 정신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위기상황의 출현으로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 패러다임은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중시해 온 역사적이고 인과적인 설명으로부터 탈피하여 작품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는 태도로 전환되었다.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에서 중시하는 형식의 개념은 고전주의의 공인된 모델로 언급되는 규범적 형식의 개념이 아니라 오브제로서의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내용보다 형식적 구성과 수법에 치중하여 형식 그 자체와 생소화의 수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해석과 접근태도는 20세기초에 형식 자체의 자율적 구성원리를 추구한 근대 건축의 미학적 사상과 이론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역사적 인식과 심미적 인식을 위해서 고유한 역할을 하는 독자를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우스는 작가 또는 작품 중심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이것은 독자 중심적인 작품의 이해 방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수용미학적 패러다임

아우스에 의해 제기된 수용미학은 1960년대 말 서독 문예학계에서 시작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으로 문학 작품의 이해와 평가를 독자,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수용미학은 문학과 사회 또는 심미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의 간격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작품 내재적, 형식주의적 관찰 방법인 서술미학과 작품 외재적, 역사적 관찰 방법인 생산 미학의 갭을 메꾸어 보려는 시도이다. 수용미학은 독자 중심적인 문학 작품의 이해를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작가-작품위주의 작품해석 이론을 전복시켜는 것이다.

3. 패러다임의 유형별 특성

패러다임의 유형별 특성은 한국근대기의 서구건축의 전개에서의 고찰과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서술되어 온 건축운동을 패러다임 유형에 대입시켜 그에 따른 개념, 원리, 방법론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CHP에 해당되는 건축사조는 고전주의, 낭만주의, 절충주의이고 그 방법론적 특성은 규범, 양식, 비례법칙, 고전 언어, 장식, 의미, 상징 등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으며, HPP에 해당되는 건축사조는 예술과 공예운동, 아르누보, 세제션, 합리주의, 기능주의이고 그 방법론적 특성은 기능분석, 합목적성,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 지역적 맥락, 실용성 등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FAP에 해당되는 건축사조는 표현주의, 구성주의, 데?스틸이고, 그 방법론적 특성은 기하형태, 형식미, 감정적 충동 등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P에 해당되는 건축사조는 탈 기능주의이고 그 방법론적 특성은 지각적 경험, 행태적 체험 등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다.

IV. 대구근대 주거건축의 작품분석

1. 분석체계와 방법

분석의 체계는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서술되어온 건축운동을, 패러다임의 유형에 대입하여 그에 따른 개념, 원리, 방법론적 특성의 측면에서 분석함을 전제로 한다.

세부적 분석내용은 각 작품의 소재지와 건립연대, 구조양식, 규모의 건물개요를 파악하고 건립에 따른 연혁조사와 현황을 기술한다. 그리고 문헌 조사와 도해분석에 따른 세부적인 기법의 분석과 건축적 특성 분석을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16개의 대상을 VI-3. 작품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정리하며 본 논문에서는 6개의 분석내용만을 기재한다.

2. 분석대상

한국근대주거건축의 패러다임 유형분석에 관해 분석함에 있어 각 지역별 근대화의 차이 등에 의해 지역별 연구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출발점으로서 대구지역의 근대주거건축물을 분석한다.

9) H.R.Jauss, op. cit, 길성호, op. cit, pp.49-50에서 재인용.

표 3. 연구대상 목록-1

	건 물 명	건립연대	기능분류	건립주체
1	BLAIR 주택	1910	주거건물	개신교
2	MCFALLAND 주택	1910	주거건물	개신교
3	SWITZER 주택	1910	주거건물	개신교
4	ERDMANN 주택	1910	주거건물	개신교
5	REINER 주택	1910	주거건물	개신교
6	FLETCHER 주택	1915	주거건물	개신교
7	경복 도지사관사	1921	주거건물	일 본
8	대구부윤관사	1923	주거건물	일 본
9	강의관 주택	1923	주거건물	중 국
10	전매국관사	1925	주거건물	일 본
11	계산성당 사제관	1929	주거건물	천주교
12	성모성당 사제관	1929	주거건물	천주교
13	육군장교관사	1935	주거건물	일 본
14	서병국 주택A	1937	주거건물	한 국
15	서병국 주택B	1937	주거건물	한 국
16	모문금 주택	1937	주거건물	중 국

대구지역의 근대주거건축물 중 실측도 및 문헌 등의 자료가 입수 가능한 것은 포함시키고, 그 자료가 명확할지라도 건립연대가 확실치 않거나 변형이 심한 건물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1) 본 연구의 시대범위는 2장의 시기구분에서 분류한 근대건축 발전기(1903-1938)의 시기에 지어진 근대주거건축물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선정한다.

2) 본 연구의 지역범위는 개화기이후 일제의 조선 경제침략을 위한 거점 도시로 성장하여 근대건축의 특성이 뚜렷한 대구지방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작품분석

분석대상중 Mcfarland주택(현, 신명학교신사임당)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206번지이며 건축년대는 1906~1910년경이다. 이 건물의 구조양식은 벽돌조적조로 된 한양절축식이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4와 같다.

평면에서는 HPP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입면에서는 CHP와 HPP의 경향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Switzer주택(동산병원 사택)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표 4. Mcfarland 주택분석

	평 면	입 면
건축적 특성	- 남쪽에 베란다를 설치. - 북쪽으로 현관홀과 - 응접실을 배치. - 1자형의 복도를 따 - 라 각실과 연결 - 거실의 서측벽에 몰 - 딩(moulding)이 있 - 는 큰 아치를 내어 옆 - 실과 연결 - 거실의 북쪽 구석에 - 는 벽난로를 배치. - 2층은 계단홀에서 4 - 개의 실과 직접 연결 - 서쪽과 북쪽 일부에 - 는 지붕으로 덮음.	- 외관은 안산암의 코니스(cornice) - 돌림. - 서쪽 우측부에 현관 포치 설치. -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 설치. - 창문 상인방은 결원 아치(arch) - 설치. - 하인방은 이형벽돌을 3켜 내쌓 - 기 하여 몰홀림 경사와 몰림기 - 홀을 둠. - 지붕은 골합석을 이은 박공지붕. - 지붕의 한쪽면에 세드(shed)형 - 지붕을 설치 - 건물내부는 바닥에 장마루판을 깔. - 천장은 대나무 쏘대 바탕에 회 - 반죽으로 마감. - 갓들레에는 가는 나무쏘대로 반 - 자들림띠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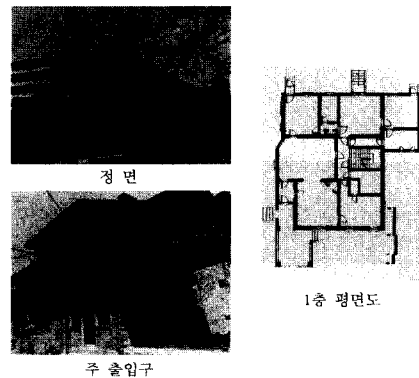


그림 1. Mcfarland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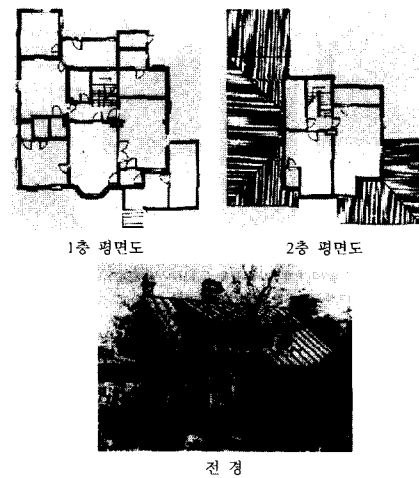


그림 2. Switzer 주택

표 5. Switzer 주택분석

	평면	입면
건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 좌측부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홀을 통하여 거실과 응접실을 직접 연결 -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계단실, 욕실, 주방, 식당등을 배치. - 2층에는 계단홀을 중심으로 남쪽에 2개의 침실을 두고 북쪽에는 욕실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암의 성돌을 바른층 쌓기한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미식쌓기. - 층간에는 코니스로 장식. -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이고 상인방은 결원 아치로 장식. - 지붕은 한식기와를 이은 박공지붕으로 남면과 북면이 세드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8월 한식기와를 합석지붕으로 개조.

시 중구 동산동 194-211호이며 건축년대는 1906~1910년경이다. 이 건물의 구조양식은 벽돌조적조로 된 한양철축식이다.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5와 같다.

평면에서는 HPP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입면에서는 CHP와 HPP의 경향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다음 Blair주택(동산병원 사택)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300호이며 건축년대는 1910년경이다. 이 건물의 구조양식은 벽돌조적조이다.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6과 같다.

평면과 입면에서 CHP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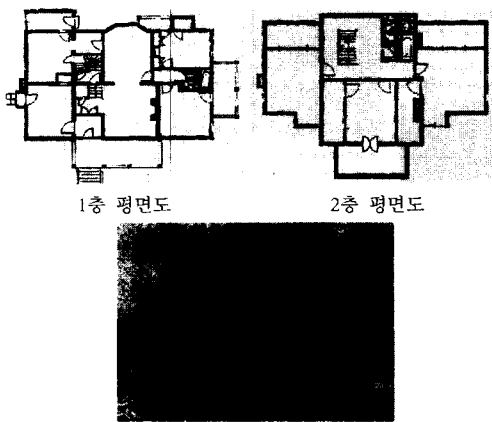


그림 3. Blair주택

표 6. Blair 주택분석

	평면	입면
건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 - 1층은 남쪽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베란다를 두고, 현관홀을 통하여 응접실, 거실, 계단실을 직접 연결 -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식당, 부엌등을 배치 - 2층에는 계단홀을 중심으로 3개의 침실과 욕실을 두고, 베란다 상부에 선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와 지하실 부분을 콘크리트로 구축하고, 그 위에 붉은 벽돌을 미식쌓기함. - 층간에는 벽돌로 톱니모양의 코니스 - 창문은 목재 오르내리창이고, 상인방은 벽돌을 세워 쌓아 결원 아치를 만듦. - 지붕은 박공면이 남, 북으로 향하는 것과 서향하는 것이 1자형으로 직교 - 동쪽과 남쪽으로 경사진 지붕면에는 세드형 지붕

다음 경북도지사관사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이며 건축년대는 1920년경이다. 이 건물의 구조양식은 목조로 된 일본식건물이다. 규모는 지상2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7과 같다

평면에서는 HPP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입면에서는 CHP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다음 강의관 주택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32번지이며 건축년대는 1923년경이다. 이 건

표 7. 경북도지사관사분석

	평면	입면
건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로 길게 배치한 일본식의 목조 2층집 - 지붕은 박공과 모임의 혼용지붕형에 기와 이음. - 평면은 1자형으로 측면의 출입구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정면 좌측 출입구의 좌측부분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변소 등을 두고 우측으로는 중복도를 따라 거실, 방, 부엌, 식당, 욕실, 변소 등을 배치. - 2층에는 통간으로 된 큰 방과 광을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의 정면 중앙부에는 2곳에 출입구를 설치외곽으로 보이는 좌측의 출입구에는 2개의 붉은 벽돌기둥을 세우고, 처마를 내밀어 현관 포치를 구성하였으며, 우측 출입구는 벽 상부에 기와 이음. - 외관은 북쪽 정면과 측면을 목조 평벽으로 구성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고 벽면에는 목재 문틀을 끼워 오르내리창과 미서 기창을 설치. - 정면의 좌측 사무실부에는 박공지붕인데 박공면은 판재로 마감하고 박공면 하단에는 수평으로 치아모양의 장식 띠를 붙임. - 남쪽의 1층 전면회랑과 2층기둥간에는 굵도리 유리문을 설치하고 이중으로 처마를 구성. - 처마끝 부분에는 붉은벽돌로 쌓은 3개의 굴뚝 세움. - 내부의 가족실에는 한쪽벽면에 벽장을 설치하고 잔살 합판문을 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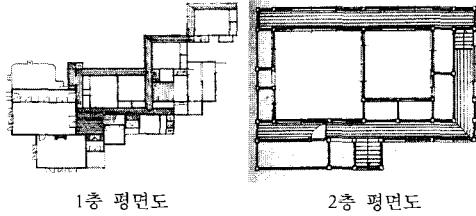


그림 4. 경북도지사관사

물의 구조양식은 붉은벽돌 조적조이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8과 같다

평면에서는 HPP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약하게 CHP의 경향도 보인다. 입면에서는 CHP와 HPP의 경향을 모두 약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음 모문금 주택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32번지이며 건축년대는 1937년경이다. 이 건물의 구조양식은 붉은벽돌 조적조이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 도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적 특성의 분석과 패러다임적 평가는 표 9와 같다

표 8. 강의관 주택분석

	평면	입면
건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형은 동서로 약간 긴장방형. - 정면 중앙 부에 벽면에서 약간 돌출된 현관 포치를 두어 마루와 연결. -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 실을 배치. - 우측 전면에는 부엌으로 연결되는 복도를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벽돌조 단층 건물로 지붕은 모입지붕형에 일식기와를 이음. - 외관은 건물 각 모서리에 약 30cm 높이의 화강석 주춧돌기초를 놓고 그 위에 각형의 나무기둥을 세움. - 기둥간에는 화강석 다듬돌로 징두리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시멘트 뿔칠로 마감. - 정면의 지붕은 벽면에서 약 60cm 정도 내밀어 처마를 두었는데, 처마 밑은 판재로 처마받자를 구성. - 창문은 평 아치형에 정면은 미서기창, 측면은 오르내리창을 설치하였고, 측면의 옷인방은 벽돌 빗아치쌓기로 함. - 양측면은 붉은 벽돌을 길이 쌓기하여 벽면을 구성. - 처마부는 벽돌 3단 내쌓기하여 처마 흡통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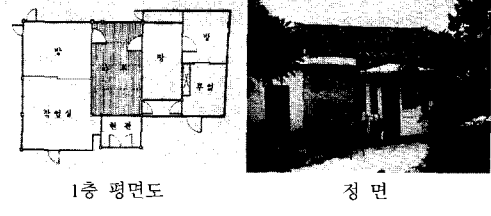


그림 5. 강익관 주택

표 9. 모문금 주택분석

	평면	입면
건축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면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으로 1층은 원래 서측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어 중복도와 연결. -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맞은편에 실을 배치. - 2층은 +자형의 평면으로 각실을 남향하여 중앙의 계단홀에서 좌우 맞은편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4면에 박공면을 둔 +자형 지붕에 동판을 이었으나 현재 네모난 석면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이음. - 외관은 남쪽 전면의 측면 1칸이 증축된 부분으로 1층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중앙부에는 테라스를 둠. - 벽면은 벽돌로 구성하여 목재 미서기창을 설치. - 측면과 배면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길이 쌓기하여 벽면을 구성하고 평아치형 인방에 목재 오르내리창을 설치. - 우측면은 창문벽을 벽돌 내쌓기하여 벽면을 수직분할하고 1층의 창인방을 빗아치 쌓기 함. - 2층에는 1층의 창옷인방에서 2층 창옷인방까지 각형 목재를 셋기둥처럼 세워 그 사이에 고창을 둔 미서기창을 설치. - 지붕은 4면에 박공면을 둔 +자형 지붕으로 원래 네모난 동판을 마름모꼴로 이었으나 현재는 석면 슬레이트를 마름모꼴로 이음 - 지붕 위에 벽돌로 쌓아 만든 굴뚝을 돌출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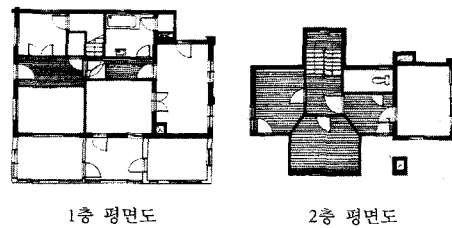


그림 6. 모문금 주택

평면에서는 HPP의 경향을 입면에서는 CHP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대상건축물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분석의 종합

각 패러다임의 유형에 따른 작품 경향과 건축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은 4개이며, 건축적 특성은 평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의 구성을 보이며 주 출입구에 포치를 설치하고 좌우측의 계단실의 배치로 강한 정면성을 나타낸다. 입면에서 역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와 지붕부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층간의 코니스 설치와 버트레스와 아치를 벽면에 덧붙여 면분할하는 장식적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경향을 보이는 작품은 6개였으며, 건축적 특성은 평면에서는 실의 기능에 따라 주공간에 부공간을 부가적으로 구성하고, 보이드에 의한 공간의 확장, 코어부분의 명확한 구분으로 효율적인 면적 사용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입면에서는 고전주의적 건축어휘의 사용은 부분적이거나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기능에 의한 명확한 개구부 계획과 기능주의적 입방체 매스에 의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의 경향과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경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작품도 6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른 패러다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건립초기의 개신교 선교사에 의한 입면의 CHP 경향과 평면의 HPP경향의 복합으로 시작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립주체에 관계없이 HPP경향 위주로 전개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분석결과의 종합

건물명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		수용미학적 패러다임	
	평면	입면	평면	입면	평면	입면	평면	입면
1. BLAIR 주택	●	◆	×	×	×	×	×	×
2. MCFALLAND 주택	×	◆	●	◇	×	×	×	×
3. SWITZER 주택	○	◆	●	×	×	×	×	×
4. ERDMANN 주택	●	◆	×	×	×	×	×	×
5. REINER 주택	×	◇	●	◇	×	×	×	×
6. FLETCHER 주택	●	◆	×	×	×	×	×	×
7. 경북 도지사관사	×	◆	●	×	×	×	×	×
8. 대구부윤관사	×	×	●	◆	×	×	×	×
9. 강의관 주택	○	◇	●	◇	×	×	×	×
10. 전매국관사	×	×	●	◆	×	×	×	×
11. 계산성당 사제관	×	◆	●	×	×	×	×	×
12. 성모성당 사제관	●	◆	×	×	×	×	×	×
13. 육군장교관사	×	◆	●	×	×	×	×	×
14. 서병국 주택A	×	×	●	◆	×	×	×	×
15. 서병국 주택B	×	×	●	◆	×	◇	×	×
16. 모분급 주택	×	◆	●	×	×	×	×	×

평면	●-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됨	○-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됨	×	적용 안됨
입면	◆-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됨	◇-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됨	×	적용 안됨

V. 결 론

서구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본질적 차이 즉, 시민사상의 대두에 의한 봉건적 사회질서체제의 붕괴와 산업발달에 따른 민중자본의 형성으로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과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시민 사회를 지향하여 준비되어 오던 민중적 역량이 19세기 후반에 들어 서구열강과 일본의 강점으로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근대화되는 상황의 차이는 패러다임의 혼재라는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대구근대주거건축 패러다임 유형의 혼재 상황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로는 고전적-인본주의적 패러다임과 역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혼용되고, 특히 평면과 입면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둘째, 패러다임 변화 원인은 서구 근대건축이 합목적성에 따른 기능주의로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사회의 수요에 따라 20세기 초에서 1920년경까지 합리주의 건축이 전개되었던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셋째, 평면과 입면에서의 패러다임 혼재 양상의 원인은 근대건축의 도입시기의 서구근대건축은 대구사

람에게 형태적으로 생소함을 유발하였으나 전통건축의 요소들은 차용하여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서구문물의 유입이 가속화 되면서 전통주거문화는 서구근대건축의 형성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평면의 기능성과 입면의 상징성으로 분화되어 건립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구근대건축을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으로 현대주거건축의 근간이 되는 근대주거건축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나 연구지역이 대구로 너무 한정되어 있고, 주제에 대한 연구사례가 부족한 관계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띠는 도시들의 근대건축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대상건축물들의 구체적이며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만길(1985), 한국근대사, 장작과 비평사.
2. 김성호(1999), 현대건축 사교론, 미건사.
3. 김일진(1988),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4. 이상근(1983), 대구 제일교회 90년사.
5. 차기벽(1985),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6. 홍경희(1966), 대구 도시 지리학적 연구, 대구시.
7. 김영태(1976), 韓國近代建築의 形成過程에 관한 史的 연구: 西歐建築의 導入과 展開를 中心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8.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9. 김정동(1991), 韓國近代 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0. 윤재웅(1991), 대구지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형성과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11. A. 기든스, 비판사회학: 쟁점과 문제점, 1982, 박영신, 한상진 공역, 현상과 인식, 1983.
12. Bill Risebero, 근대 건축과 디자인, 박두용·이근택 역, 기문당, 1990.
13.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조성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14. 피터 콜린스,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문화사, 1989.
15. H.R.Jauss, "Paradigmawechsel in der Literaturwissenschaft", Linguistische, no.3, 1969.
16. Preez Gomez,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 The MIT press, 1983.
17. 경상북도사 중권, 경상북도사 편찬위원회, 1983.
18. 대구시사 1권, 대구시사 편찬위원회, 1973.
19. 대구시사 2권, 대구시사 편찬위원회, 1973.
20. 대구시사 2편, 대구부, 1943.
21. 한국의 현대건축, 한국 건축가 협회. 1996.